
미술자료 관리와 자료실 실태, 미술정보센터 설립

김달진

김달진은 1955년생으로 서울산업대와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1~1996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1996~2001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을 역임했다.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하고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저서로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이 있다.



Research on the administration of arts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 of arts information center

Kim Dal-Jin

Growing arts data about artists, exhibitions, spaces, and markets every year make us consider how to manage them in acquisition, classification and analyzation and how to hand them down to our next generation. First of all, it is clear that we must keep these arts data effectually without any kind of loss. In order for someone to use these data, there should be someone to produce them. It is important because it is all about producing information, not about its value.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role and value of art information.

1. Arts data

1-1. Exhibition

Arts are evaluated through exhibitions and recorded in history. I studied five arts yearbooks which records all of the arts for an entire year.

1-2. Artist

I studied index dictionaries of artists and relevant websites to find out how they are recorded.

1-3. Arts book

I studied nine information books that help us find arts materials.

2. The status of art information centers

I studied the present situation of eight public museum libraries and four private libraries.

3. The closing of art information centers

I studied the closing of some art libraries, missing arts reports, and six websites that have been closed.

4. The status of arts data and improvement

5. The problems of art information center

First, the lack of knowledge about arts data

Seco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Third, the lack of budget

6. Proposal for establishing the art information center

As the National Library developed and distributed the KORAS,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e need to develop this kind of program for such arts institutions as libraries, art museums, galleries, art colleges, etc. Then it is easier to build arts networks between them. I strongly recommend an art library to collect all arts information

and provide it to the users at the same time. I recommend that it should be located in Insa-Dong for the convenience of public access.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globalization of our arts information about contemporary art, art events, and artists is recommended and it should be done through authorized and unified channels.

7. Conclusion

I hope to establish an art library around Insa-Dong where is more accessible for everyone. Insa-Dong is also a popular place for artists, collectors, and international visitors. In order to make our art international, I recommend building an arts data museum, art library, and art book cafe which are include all the functions of a multi-art space. We must also have a digital database for all of this arts information.

I am already taking steps in collecting arts data through a campaign for donation of raw materials in art before they are damaged and lost. Our government also feels it is time to concentrate on arts information, but it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exhibitions, events, arts studio or the building of art institutions. I insist it is time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art information. I hope it will begin a new era for Korean art information to communicate with all people and generations.

목차

1. 미술자료
 - 1-1 전시회
 - 1-2 미술인
 - 1-3 미술자료집
 2. 미술자료실 실태
 3. 미술자료실 설립의 흔적
 4. 미술자료의 실태와 개선방안
 5. 미술자료실의 문제점
 6. 미술정보센터 설립 제안
 7. 결론
- 도표 1~3
- 참고문헌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가 색다른 문화를 잉태하고 있는 중이다. 정보사회란 정보가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사회이다. 21세기가 ‘정보화시대’라는 말은 이제 식상한 표현이 된지 오래다. 미술분야에 있어서 정보는 시간적 추이와 새로움을 찾는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미술사조와 세계 미술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미술의 주체적인 확립, 넓게는 우리 미술이 세계 미술 속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 미술계도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미술관, 화랑, 미술대학, 연구소, 작가, 경매, 전시회, 미술관련 이벤트 등 수많은 정보를 얻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추세이다. 첨단매체와 통신을 이용하여 미술정보를 영상으로 얻을 수 있고 안방에서 작품감상을 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미술관, 화랑 및 작가들이 미술 웹사이트를 만들고 업체까지 가세하고 열풍이 대단하다. 미술공간도 확대되어 건축물 안의 전시장 또는 야외 공간에서의 전통적인 전시회 외에도, 컴퓨터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시회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매년 작가, 전시회, 전시공간, 관람객, 미술시장 등의 성장과 함께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다양해지는 미술정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 정리, 기록, 보존하여 후세에 남길 것인가? 우선 오늘날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 자료를 소멸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정리, 보존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보의 부가가치는 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리와 재생산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록과 자료의 가치와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해 버리는 풍토가 쇠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자료의 기본이 되는 자료집, 연감, 미술사전, 인명록, 통계가 부족하다.

정보情報: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나 자료

자료資料: 무엇을 하기 위한 재료, 특히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

콘텐츠contents: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및 이들의 집합물

아카이브archives: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보존기록을 수집·보존·관리하는 기관

정보화시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얻어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정보(情報)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관한 소식 또는 그 자료나 내용을 말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취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모든 소식인 셈이다. 정보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되어 가공이라는 가치창조작업을 거쳐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강구될 때 유통이 원활하게 된다. 사회적 수요를 외면한 정보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도 그 가치를 잃게 된다. 또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전달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

1. 미술자료

1-1 전시회

미술은 전시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역사에 남게 된다. 1년 동안 미술계의 기록을 남긴 연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1966년 대한민국예술원의 <한국예술지>와 197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연감> 중에 미술부문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미술연감의 발간은 1977년 <한국미술연감>, 1984년 <열화당미술연감>, 1986년 월간미술의 <한국미술 1986>으로 이어졌다. <문예연감>의 1년 전시회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국내에서 1986년 2,019건, 1987년 2,505건이던 것이 갑자기 1988년에 3,537건으로 전년 대비 141%로 늘어났고 1989년은 마찬가지로 3,537건이었다. 1년에 몇 천 건인 전시회가 늘어가는 추세였으나,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다. 1995년 3,447건, 2000년에 6,351건, 2005년 8,858건, 2006년 8,924건, 2007년 9,840건, 2008년 10,96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1986년 2,019건에서 20년 후인 2006년은 8,924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1) 한국예술지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창간하여 당해 연도 우리나라 예술활동 및 총평을 수록한다는 취지로, 1965년도 판을 1966년에 창간하여 1992년 27권까지 발간되었다. 1권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로 나뉘고, 미술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사진 7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1960년대에는 별도로 풍부한 내용의 자료가 수록되었으나, 호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너무 빈약해졌다.

2)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1976년도 판을 1977년에 창간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창간호는 한국학, 전통예능,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출판, 일반자료의 10분야로 정리하고, 미술은 개관, 동양화, 서양화, 조각, 평론, 서예, 공예, 건축, 디자인, 사진, 자료의 11항목으로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1984 문예연감>을 보면 1983년 기록을 담고있는데 미술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미술평론, 서예, 공예·디자인, 건축, 사진 8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후 자료편이 빈약해져서, 1998년에 나온 문예연감을 보면 문학, 미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문화일반 7부문으로 분류되었다. 미술은 다시 한국화, 양화·판화, 조각, 공예, 디자인, 건축, 사진, 서예, 미술평론의 9부문 개관과 자료는 전시회 중심으로 미술분야 주요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2008년 문예연감을 보면 미술이 시각예술로 바뀌고 총론, 현황분석 - 2007년 미술전시회 경향과 주요 사건 외에 장르는 평면, 입체, 공예, 디자인, 건축, 서예, 뉴미디어·설치, 평론, 8부문으로 그 방면 전문 필자가 1년 흐름을 서술했다. 이 문예연감은 1년간 평론가들이 쓴 장르별 흐름, 전시통계, 기록을 수록하고 있지만, 도판, 사진, 행사 등의 기록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3) 한국미술연감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미술연감으로 한국미술연감사에서 펴냈으며 1977년 창간호는 19×24cm로 657쪽, 정가는 15,000원이었다. ‘기록은 하나의 엄연한 역사입니다’를 내세우며 각고 2년 만에 창간됨을 창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작가명감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5부문 작가를 출생순으로 수록하고, 자료로는 한국 서화가 인명록, 시대별 중국 서화가, 일본 미술작가 단체, 연중 전람회 일람, 미술관계 서적, 전국 화랑, 화상, 표구사 등이 있고, 전람회 일람은 1975년 11월에서 1976년 11월까지 수록되어 있다. 2호 1978년과 3호 1979년에는 한국화, 양화, 조각, 공예, 서예 5부문을, 작가 근영은 출생순으로 수록하고 약력사항은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다. 4호 1980년은 명감을 동양화가와 서예가 2부문만 근영을 넣어 약력을 가나다순으로, 5호 1981년은 명감에 서양화가를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외작가, 소재불명으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수록하였다.

6호인 1982년 명감에는 조각가와 공예가를 미술단체별로 근영을 넣어 약력을 가

나다순으로 편집하고 작품사진 별도 수록, 사진작가는 가나다순으로 편집하였고, 7호인 1983년 명감에는 한국화가를 미술단체별 가나다순, 서예가는 출생순, 전승공예가는 재료별, 출생순으로 수록하였다. 8호는 1984년에 한국화가, 서양화가, 전통공예가를, 9호는 1985년에 조각가, 공예가, 서예가를, 10호는 1986~87년에 한국화가, 서양화가, 전승공예가를 미술단체별로 수록하였다.

11호는 1991년에, 4년 만에 판형을 23×29cm로 확대하고 1, 2권으로 발행하였다. 1권은 자료편으로 미술계 개관, 연중 전시약사, 공모전 기록, 미술지 내용목록, 선전 / 국전 / 미술대전 일람: 한국화·서양화, 역대미술관계인물고 등으로, 2권은 명감편으로 한국화가, 서양화가, 서예가를 작품사진과 약력을 넣어 수록하였다. 12호는 1994년에, 명감은 조각가를 수록하고, 13호는 3년만인 1997년에 3권 200,000원으로 발행하였다. 1권은 자료편으로, 호로 작가를 찾는 호보, 작가별 국전, 미술대전 입상 경력, 시대별 미술인명록을 수록하였고 2, 3권은 한국화 명감편으로 한국화가별 얼굴, 작품 컬러도판, 경력사항으로 이루어졌다.

4) 열화당미술연감

미술도서 전문출판사로 알려진 열화당이 만들어낸 미술연감이다. 1983년 자료를 모아 1984년판으로 창간되었는데 책 크기는 16×23cm로 512쪽, 정가는 15,000원이었다. 이 연감은 좀더 풍부하고 생동하는 자료로서, 또한 시각적 배열의 특성을 살려 자료적 효율을 높이는 편집방식을 택하였다. 책의 반을 나누어 한 면은 전시회 내용을 다른 면은 작품사진이나 전시장 광경 사진을 싣고 있다. 또한 전시회 출품작가 명단, 전시회 내용에 대한 평가, 전시회와 관련된 관계기사 색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시회를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디자인, 건축, 사진, 종합전, 해외작가 국내전·교류전, 국내작가해외전, 기타전시로 나누었고 6부문별로 전문가의 개관이 실려있다. 부록으로 공모전 수상자, 미술계 동정, 일간지 미술기사 색인, 잡지 목차, 미술단체, 작가 명단, 미술평론가 명단, 각 대학 미술교수 명단, 미술관계기관 및 미술관·화랑이 실려있다.

일간지 미술기사 색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9종의 주요기사가 낱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잡지 목차는 격월간 꾸밈, 계간 미술, 계간 화랑, 공간, 디자인·포장(산업디자인)

인), 문예중앙, 문예진흥, 선미술, 신동아, 예술평론, 월간 광장, 월간 마당, 월간 조선, 월간 종합디자인, 월간 춤, 현대의 미술 16종으로, 미술잡지가 아닌 일반잡지의 미술관련 기사를 색인해 놓은 점이 좋았다.

미술단체는 115개 단체로 성격, 창립전, 회원이 소개되었다. 작가명단은 동양화가, 서양화가, 조각가, 공예가, 서예가 5부문 512명의 출생년, 학력, 현직, 현주소 등 간단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2권 1985년은 1권보다 내용이 증면되었고 별도로 앞쪽에 작품 컬러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명단에 디자이너, 건축가, 사진작가 부문이 추가되었다. 3권 1986년은 '85년 한국미술계를 부문별 개관이 없이 7명의 좌담으로 엮었다. 4권 1987년부터 연감이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책이 얇아졌고 정가도 10,000원으로 내렸다. 활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도판이 줄었다. 전시회는 10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부록에는 각종 자료를 9항목으로 수록하였다. 5권은 1988년, 6권은 1989년에 나왔으나 이후 경영상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5) 월간미술 미술연감

중앙일보사 월간미술이 1995년 기록을 모아 <한국미술 1996>을 창간하였다. 책 크기 19×25cm, 2권으로 만들어졌고 정가는 50,000원이다. 본책은 375쪽이고 별책 <ARTIST & GALLERY>로 206쪽이다. 책의 내용은 크게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화보는 한 해 동안의 한국미술을 사진으로 요약 압축하였다. 미술계의 주요 행사, 사건, 이슈를 10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생생한 현장사진으로 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설은 창작분야의 장르별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비평적으로 정리했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디자인, 미술이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행사·사건은 1년간의 미술계 궤적을 객관적으로 엮었다. 대주제로 분류하고 다시 소항목으로 나누어 미술의 해, 학술·비평, 아트페어, 미술상·공모전, 인물동정 등 12개 항목이 있다. 전시초점은 국내에서 열린 대형기획전을 다루었고 하이라이트는 1년동안 있었던 개인전 중에서 60건을 실었다. 자료로는 1995년 전시 일람, 미술 관련기사, 단행본, 학위논문의 주제별 색인을 실었다. 별책은 미술인 인명록편으로 작가, 미술이론가, 대학교수, 미술단체, 재단, 학회를 싣고, 미술문화 공간편은 화랑, 미술관, 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에 발행된 2권은, 두 권으로 발간한 전년도 1996년 판과 달리, 한권 578쪽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화보, 개관, 행사·사건, 전시, 자료, 미술인 인명록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도판이 많이 줄었다. 3권은 1998년에, 전년도에 비해 200쪽 정도 분량이 많아진 769쪽으로, 내용은 화보, 개관, 행사·사건, 전시, 기사 색인, 미술인 인명록, 자료, 해외미술관으로 구성하였다. 전년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책값이 올랐고 인명록에 서예, 사진 부문까지 확충하였고 새로 세계 주요미술관 주소 1천여 곳을 수록하였다. 2009년판 개관은 회화, 조소, 미디어아트, 공예, 사진, 서예, 미술사·평론 7부문으로 서술했다. 또한 전시 목록, 미술 출판물, 행사·사건, 학술 등 풍부한 자료로 활용도를 높였다. 책값은 30,000원이다.

1-2 미술인

미술활동의 주체가 되는 미술가를 어떻게 자료로 역사에 남기는지 살펴보았다.

1) 미술인명사전

우리나라 최초의 서화가 사전은 1928년에 나온 위창 오세창의 ‘근역서화징’, 1959년 김영윤의 ‘한국서화인명사서’ 1979년 유복열의 ‘한국회화대관’ 등이 있다. 근역서화징은 “미술사학도의 성전”으로 불리며 작품은 물론 270여종에 이르는 문헌을 철저히 고증하여 서화가 1,117명을 올려놓았다.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 상, 중, 하로 나누고 작가별로 자, 호, 본관, 가세, 출생년도, 수학, 관직 사망년도의 순서로 꼼꼼히 서술한 다음, 작가에 대한 기록과 논평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불후의 명저는 한문으로 서술되어 연구자에게만 읽혀 오다가, 70년만인 1998년 시공사에서 ‘국역 근역서화징’을 3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그후 1977년 한국미술연감이 창간되어 13권이 나와 작가의 약력을 소개한 명감편이 작가를 찾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본격적으로 현대작가를 모은 인명사전으로는 열화당에서 1977년에 펴낸 ‘현대미술가인명사전 - 한국미술가편’이 있었다. 근대에서 현역까지 한국화가, 서양화가, 조각가 463명을 문고판으로 도판 없이 묶었다. 이 사전은 작았지만 작품세계까지 언급해 놓아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4쇄 이후 절판되었다. 그리고 교학사에서 1993년에 펴낸 ‘미술가인명사전’이 있는데 한국편, 중국편, 구미편으로 구성하여 한국편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323명이 원색도판과 함께 실려있다.

2000년 범우사가 창립 34주년 기념도서로 내세워 ‘한국서화가인명사전’을 펴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근현대까지 서화가를 총 망라하여 서예가 3,000여 명, 화가 2,000여 명, 불화승 2,400여 명, 현존작가 2,000여 명 등 9,400여 명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저자인 한문영씨는 소설가로 여러 잡지, 출판사의 편집장, 주간 등을 역임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책이 나오기 전인 1999년 12월 타계하였다. 30년 동안 자료를 수집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렇다 할 미술가인명사전이 없는 우리 미술계에 이 책은 큰 수확물이자 경사였다. 이 사전에는 도판으로 서예 760여 점, 그림 560여 점, 인물사진 70여 점 등, 총 1,400여 점이 수록되었다. 아쉬운 점은 도판에 작품제목이 없거나, 제작년도, 크기, 소장처 등이 표기되지 않아 안타깝다. 현역작가는 부록 생존 서화가편에 모았는데 30년 가까이 작품활동을 한 50세 이상으로 제한했음을 밝히고 있다.

본격적으로 2000년 월간미술에서 ‘한국근현대미술가사전(가칭)’이 화가, 조각가, 공예가, 서예가, 사진가, 평론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일은 김달진, 김현숙, 윤범모, 이준, 정준모, 최열 6명의 편찬실무위원회에서 수록할 화가, 조각가, 평론가를 선정하여 그 작가에 대해 원고를 청탁하여 진행되다가 재정적인 사유로 중단되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찾아볼 수 있는 광범위한 인명록은 많지 않다. 한국미술연감은 1977년 창간하여 전시 기록보다는 작가의 약력을 찾아보는 명감으로 그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중단되었고, 월간미술 권말부록 미술인명록도 99년 이후 중단되었다. 이런 인명사전들이 필요하지만 노력과 제작비의 투자에 비해 판매가 적어 지속되기 어렵다.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는 한국미술인 인명록(가칭)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인명록은 1) 1850년 이후 출생하여 2009년까지 타계한 미술인, 2) 1850년~1970년 사이 출생한 비창작미술인, 3) 1960년 이전 출생한 생존작가를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사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미술인들 속에서 작가로 평가받고 미술사에 기록되는 미술가는 소수의 사람일 뿐이다. 유명한 작가들은 사후에도 연구가 되지만, 웬만한 작가들은 타계후 잊혀지고 자료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 인명록이 발간되면 한국 근현대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며 그만큼 미술사 연구와 서술의 기본자료가 풍성해지고 미술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간 이들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2) 미술사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미술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미술작가 500인의 홈페이지(art500.arko.or.kr)>를 운영해왔다. 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1999년 원로미술작가 27명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시작해서, 2000년 미술작가 500인 홈페이지가 국가지식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2001년 2월부터 500인 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시되어 대상작가가 2001년 9명, 2002년 6명, 2003년 7명, 2004년 5명 추가되고 메인페이지 디자인이 전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2008년 8월 한국화 103명, 서양화 190명, 조각 100명, 공예 58명, 사진 25명, 설치미술 57명, 계 533명을 관리했다. 서비스 내용은 작가년보, 작가인터뷰, 작가노트, 평론모음, 갤러리(작품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미술작가 500인의 홈페이지(art500.arko.or.kr)>를 새로운 형태의 미술작가(artblog.arko.or.kr) 홈페이지로 개편했다. 이는 작가들이 직접 콘텐츠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이 구성은 작가소개, 평론게시판, 일반게시판, 작품, 일반사진, 동영상, 방명록, 일정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동참할 것인가 의문이다.

현재 달진닷컴 www.daljin.com의 미술자료실 안에 있는 인명사전에서 3,482명의 작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인명사전은 미술인의 기본 사항인 출생년 / 장르 / 학력 / 현직 / 주소 / 인물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인이 참여하여 등록과 수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월간미술 www.monthlyart.com의 미술인명록에는 미술인 5,468명, 전시장 760개소, 미술단체 312개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3 미술자료집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는 세상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에서 주제어를 치면 많은 정보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보다 전문적인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만든 자료집들이 있다.

1) 한국고고학 미술사연구 논문목록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 30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 1975년 ‘한국고고학·미술사 도서전’을 갖고 발간했으며 19×26cm로 114쪽이다. 내용은 1945년 8월부터 1975년 8월까지 한국고고학·미술사분야의 논문·저서를 모았다. 분류를 크게 고고학과 미술사로 대별하여 다시 물질을 바탕으로 세분하였다. 한 세목 앞에서는 저자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저자의 저작은 발표연대 순으로 정리하였다. 목차는 I 총론, II 문화재보존, III 문화재, IV 고고학, V 미술사, VI 민속학, 기타로 구분하였다.

2) 학술논저총합색인: 미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73년 이래로 해마다 한 주제를 선정하여 펴낸 학술논저총합색인의 제14집이 미술편으로 1986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은 18.6×25.7cm로 330쪽이다. 이 색인은 1945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미술분야의 모든 저작 중에서 단행본, 학위논문, 논문 총 10,108 항목을 수록하였다. 색인은 2부로 나뉘어 주제별 저자색인과 서명색인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제별 저자색인은 KDC(한국십진분류표)를 기초로 9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색인은 1. 미술일반, 2. 조경, 3. 건축술, 4. 조각, 5. 공예, 6. 디자인, 7. 회화, 8. 서예, 9. 사진술이다. 제26집이 미술로 1998년에 발행되었다.

3) 학술논저총합색인: 문화재

국립중앙도서관이 1973년 이래로 해마다 한 주제를 선정하여 펴낸 학술논저총합색인의 제25집이 문화재편으로 1997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은 18.6×25.7cm로 347쪽이다. 이 색인은 1945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문화재분야의 모든 저작물 총 12,717항목을 수록하였다. 본문과 저자색인명으로 편성하였고 본문은 문화재일반, 유형문화재, 기념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보존 및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4) 연희조형관 자료목록집

연희조형관 미술자료실에 소장된 자료를 도서, 논문, 슬라이드, 비디오, 정기간행물, 카탈로그로 나누어 수록했다. 이 자료집은 19×26cm로 1집은 1988년, 2집은 1989년, 3집은 1991년, 4집은 1993년에 발행하였다. 카탈로그는 장르별로 나누어 전시회 연대 일자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카탈로그를 한종마다 자료목록집에 수록한 것은 드문 예이다.

5) 국립현대미술관 자료목록집

이 자료목록집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서실, 자료실, 시청각실에 소장된 자료를 수록했으며 1989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은 19×26cm로 427쪽이고 내용은 각 실별 소장자료로 10항으로 정리되었다.

제1장 도서실 소장 자료

1. 도서 2. 학위논문 3. 정기간행물

제2장 자료실 소장 자료

4. 미술단체 5. 국내외 주요전시회 및 기획전 6. 전시회포스터

7. 외국미술관 8. 외국미술인

제3장 시청각실 소장 자료

9. 슬라이드 10. 비디오

6) 가마골 끌어숨누리

부제가 '부산미술계 반세기'로 서양화가 이용길이 1993년에 엮었고, 15×22.5cm, 472쪽 7,000원이다. 1940년대부터 1983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한 작가들에 관해 부산지역 일간지 등에 실렸던 비평과 해설기사 가운데 부산미술계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 200편을 골라 실었다. 부록에는 부산미술일지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전시회를 기록하였다.

7) 한국미술사 논저목록

미술사논단 창간호 별책부록으로 한국미술연구소 편으로 시공사에서 1995년에 발행되었다. 내용은 한국미술사의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각 분야에 관한 연구 논저물을 종합한 목록집이다. 수록 범위는 1890년에서 1994년까지 국내외에서 간행된 것으로 특히 논문은 학술지에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실었다. 이 책은 15.5×22.5cm로 371쪽이고 이 책의 특징은 일문, 영문 및 북한에서 발간된 논저목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총론 / 일반전통미술, 불교미술, 근대미술

회화 / 일반전통회화, 민화, 불교회화, 무속화, 판화, 근대회화

서예 / 일반전통서예, 사경, 금석문, 전각·인장, 근대서예

조각 / 총류, 불교조각, 일반전통조각, 근대조각

공예 / 일반전통공예, 근대공예
건축 / 일반전통공예, 근대공예
석·박사학위논문 / 총론, 회화,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인명 찾아보기

8) 국립현대미술관 사료집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 10주년 기념으로 1969년 설립부터 1996년까지의 각종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19×26cm로 286쪽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색도판 1. 미술관 약사 2. 일반 현황 3. 소장품 4. 소장품의 보존과학
5. 전시 6. 교육 7. 종합문화공간화 사업 8. 움직이는 미술관
9. 조사연구 및 학술 10. 출판물 11. 도서·자료 / 부록 1, 부록 2

9) 동아시아회화사연표

미술사논단 제5호 1997년의 별책부록으로 선사시대~1950년까지 연도별로 중국, 한국, 일본 3개국 회화사를 정리하였다. 한국미술연구소편으로 18×24cm, 527쪽이다.

2. 미술자료실 실태

미술자료실(여기서는 미술도서실·자료실·자료관·정보관·아카이브를 모두 포함한다)이란 미술분야의 자료를 전문으로 취급, 관리하는 자료실이다. 미술자료실은 미술이라는 단일 주제 분야를 취급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자료실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볼 때 미술자료실은 대부분 미술관, 화랑, 미술대학 및 유관 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장자료의 특성은 기관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미술자료실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설기관, 대학, 개인자료실로 구분되지만 여기서는 국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2009년 9, 10월 각 기관에 우편,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국공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8개처를 조사하였다. 그 외 사립미술

관 몇 곳과 김달진미술연구소에 미술자료실이 있다. 미술자료실이 모기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관의 한 부서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이용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관의 장서현황을 보면 서울시립미술관 18,500권, 국립현대미술관 18,428권, 부산시립미술관 8,076권이며, 자료실의 연면적은 대전시립미술관 74평, 부산시립미술관 72평, 국립현대미술관 70평, 서울시립미술관 48평이다.

각 미술관의 자료구입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립미술관은 전체 예산 50억여 원 중 자료구입비가 1,340만원으로 0.27%, 경남도립미술관 30억여 원에서 자료구입비는 1,000만원으로 0.33%, 광주시립미술관 57억 4,000만원에서 자료구입비는 200만원으로 0.03%, 대전시립미술관 39억 4,340만5천원에서 자료구입비는 500만원으로 0.13%, 부산시립미술관 55억 5,859만원에서 자료구입비는 1,743만6천원으로 0.31%이다. 국공립미술관등의 자료 구입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 경기도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은 2006년 10월에 개관했다. 미술자료실은 내부직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56㎡(약 17평)이고 열람좌석수는 8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3,270권, 연속간행물 36종 2,126권, 비도서 2,024부이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GOLDIS - PRO(KOLAS II Version)를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50억여원 중 1천3백여원이다.

2)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은 2004년 6월에 개관했다. 미술자료실은 일반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158.4㎡(약47평)이고 열람좌석수는 18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4,023권, 연속간행물 26종 2,846권, 비도서 2,846부이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30억여 원 중 1,000만원이다.

3)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1992년 8월에 개관했다. 미술자료실은 자료열람실과 아카이브자료

조형_아카이브

실로 나뉘는데, 자료열람실은 일반공개하고 있으며 아카이브자료실은 비공개 운영하고 있다. 면적은 250㎡(약75평)이고 열람좌석수는 20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4,776권, 연속간행물 1,896권, 비도서 196부이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WEB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57억 4,000만원중 200만원이다.

4)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은 1998년 4월에 개관했다. 미술자료실은 2007년 1월부터 일반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246㎡(약 74평)이고 열람좌석수는 40석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 4,681권, 연속간행물 1,930여 점, 비도서로 영상미디어자료 370여 점과 도록 및 리플릿 13,000여 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책꽂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39억 4천여 원 중 500만원이다.

5)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은 1999년 2월에 개관했다. 미술자료실은 개가식 자유열람방식으로 일반공개이며 관외대출은 직원과 도슨트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면적은 235.58㎡(약 72평)이고 열람좌석수는 48석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 8,076권, 연속간행물 38종, 비도서로 CD 및 DVD 287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DB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55억 5천여원 중 1천7백만여원이다. 2007년 50년간 미술자료를 수집해온 이용길씨가 다량의 자료를 부산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다.

6)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은 2004년 10월에 개관했다. 미술자료실은 비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45㎡(약 14평)이고 열람좌석수는 10석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 3,064권, 연속간행물 559권, 비도서로 영상자료 313부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책꽂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20억여 원 중 800만원이다.

7)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10월에 개관했으며 미술자료실은 1981년에 설치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은 1981년 덕수궁 시절에 자료실로 출발하여 1986년 경기도 과천에 신축이전하면서 도서실, 자료실, 시청각실로 분리 운영하다가 시청각실은 다시 자료실로 합쳐졌다. 처음에는 직제상 섭외교육과 소속이었으나 후에 학예연구실 소속으로 바뀌었고 자료실이 도서실로 통합되면서 도서자료실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도서자료실이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미술자료실로 변경했다. 미술자료실은 일반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31.4m²(약 70평)이고 열람좌석수는 18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도서 18,428권, 연속간행물 110여 종, 비도서 4만여 건이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KOLAS II UP(도서 및 연속간행물류), 자체 관리프로그램(미술인 및 팸플릿 자료)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239억원 중 3,000만원이다.

이곳에서는 미술 단행본, 연속간행물, 논문집, 시청각자료 이외에 근현대미술가들의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미술가 개인 파일에서는 작가별 미술인 카드, 개인전 팸플릿 등을 볼 수 있다. 전시 팸플릿은 입수되면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 등으로 분류 정리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미술가들,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작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작가, 자료만 모아놓은 작가로 구별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정보검색은 소장품검색, 작가검색, 전시회검색, 도서검색, 비도서검색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품검색은 소장품 카테고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작품명, 작가명, 제작년도, 작품유형, 재료기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작품명으로 '묘법'을 입력하니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 16건이 검색되었고, '박서보'를 입력하면 19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결과로 검색된 작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작품을 크게 볼 수 있으며 작품명을 클릭하면 작품의 상세정보, 작가명을 클릭하면 작가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작품상세정보 페이지는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인 작품명, 작가명, 제작년도, 작품유형, 재료, 기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작품설명과 큰 이미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현재는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동영상, 3D(고/저), 내레이션 항목이 있어 추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작가검색은 미술정보 카테고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작가명, 아호명, 작가유형(장르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작가명 '박서보'를 검색하면 1명이 검색되고, 아호 명으로는 현재 검색이 원활하지 않다. 작가유형에 한국화가를 체크하면 427건이 검

색되었고, 전체 2,386건의 작가가 등록되어 검색이 가능하다. 작가상세정보 페이지는 작가설명, 활동사항, 경력사항, 상훈사항, 작품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엔 함께 수록되어 있다. 위의 작품검색 화면과 연동되어 작가설명과 작품 이미지를 서로 교차해가며 볼 수 있다.

전시회검색은 전시 카테고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회 정보를 검색이 가능하다. 전시회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약 403건의 전시회정보를 수록했다. 기간, 장소, 참여작가, 작품 수, 주최 및 후원과 더불어 전시회내용 상세설명, 전시회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짝막한 정보, 그리고 작품도록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도서검색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표제, 저자, 키워드, 발행자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발행년도, 자료의 형태별로 세부 검색도 가능하다. 도서를 검색하면 번호 / 제목 / 저자 / 출판사 / 발행년도 / 청구기호 / 자료있는 곳 / 구분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비도서 자료 검색에서는 1989년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1990년 이후 전시회 목록과 원문이미지는 앞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자료구분(개인전 / 단체전 / 기획전), 자료형태(팜플렛 / 엽서 / 기타), 자료명, 참여작가명, 전시일자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료명에 '김환기'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검색된다.

새봄 아그배 그림 모음전 - 오지호·김환기·이응로에서 고영훈·박문중까지
- (전시명) / 1992.03.10(전시기간) / 갤러리 아그배 (전시장소) / 엽서(자료 형태)

'박서보'로 검색을 하면 정창섭·박서보 2인전 / 1987.03.12 / 공간미술관 / 엽서로 나타난다.

그 외의 자료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행한 간행물도 검색이 가능한데 미술관 연보 / 백서, 현대미술관연구집, 미술관소식지, 학술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미술관연보 / 백서는 PDF로 제공되고 있다. 현대미술관연구집의 경우는 14집까지는 웹페이지로, 15집부터는 PDF로 원문이 보이며, 미술관소식지는 이북(E-book)의 형태로 열람 가능하다.

8)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8월에 개관했으며 미술자료실은 2003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 설치되었다. 미술자료실은 일반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160㎡(약 48평)이고 열람좌석수는 18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18,500권, 연속간행물 50종, 비도서 6,700여 종이며 자료관리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한 서울시 자체개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전체 125억 6,000만여 원 중 1,700만여원이다.

자료실의 기본은 처음 미술관이 개관할 때 서울시 서울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자료실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이관된 것이다. 처음 자료실은 사무동 1층에 있다가 전시동 2층으로 이전했으며 자료관리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자체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최근 3년간 자료 수집은 2004년 1,202종, 2005년 1,945종, 2006년 1,347종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미술정보 검색은 크게 소장품 검색과 종합자료실 소장도서 검색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장품 검색은 작품유형(장르별), 작품명, 작가명, 제작년도, 재질 / 기법 및 구분(소장품 전체, 아트뱅크)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소장품 정보를 볼 수는 있으나, 검색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가능한데, 검색결과는 대표이미지와 작품명 크기, 재료, 상세이미지 및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다.

소장품 검색은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미디어아트, 사진, 설치로 장르 구분을 하고 있다. 각 장르별로 한국화 454점, 양화 884점, 판화 308점, 조각 173점, 공예 98점, 서예 21점, 미디어아트 10점, 사진 280점, 설치 9점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화 부분의 경우에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 90여 점과 박노수 화백의 작품 58점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관자료 검색은 총 18,797건의 자료를 유형 및 항목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자료 유형이란 자료의 주제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등으로 구분한다. 검색 항목은 자료명, 제작자·저자명, 제작가(출판사), 제작년도(출판년도), ISBN으로 구분해 놓았다. 분류 항목으로는 미술조각, 미술회화 및 미술공예, 미술단체 외에도 여러 장르와 형태로 구분되어있다. 도서를 검색하면 자료명 / 저자명(번역자명) / 출판사 / 출판년도로 결과가 제공된다. 예술분야의 도서는 11,394건으로 이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체육 등 예술의 다른 장르 및 미술분야의 정기간행물과 외국서적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학술자료도 검색이 가능한데 아직은 분량이 많지 않아 검색하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축적되면 검색의 활용이 기대된다. 학술자료로는 세미나 자료집을 PDF로 원문 열람할 수 있다.

9) 삼성미술관 리움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료실은 용인 호암미술관, 중앙일보사 20층 삼성문화재단 삼성미술관 자료실, 서울 종로구 은니동 한국미술기록보존소 등 세 곳에 흩어져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한남동에 새로 개관하면서 한국미술기록보존소가 용인으로 이전했고, 삼성미술관 리움 도서실은 리움 2층에 아동교육문화센터 옆에 자리잡았다. 리움 도서실의 2007년 보유자료는 도서류 46,000권, 정기간행물 18,800종, 비도서자료 11,000건으로 파악된다.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모빌렉이 설치되었고 포스터함이 있다. 잡지가에 고미술, 현대미술 관련 잡지, 재단 발간물 등을 비치했다. 그러나 삼성계열사 직원 이외 일반인에게 비공개되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삼성미술관 부설로 운영되는 한국미술기록보존소(Archives of Korean Art)는 최초로 한국 근현대미술의 기록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1999년 개소하여 2001년 일반 공개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안국동 백상기념관 뒤편 송현동에서 출발하여 은니동에 있었는데 2005년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이전했으며 1층 기록물, 지하층은 도서, 전시 팸플릿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2007년 기준, 도서류 6,680권, 정기간행물 4,570권, 비도서자료 85,440건 등이 있다.

10) 아르코예술정보관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발족하였고 1979년 5월 동숭동에서 도서실로 출발하여 1987년 덕수궁 내 문예진흥원 산하 기관인 문화발전연구소 자료관으로 변경되었다. 1992년 5월 예술의 전당 자료관과 통합하여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하였다. 2005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발족으로 아르코예술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년(2009) 6월 문예위에서 분리추진이 결정되어 독립기관으로 발전해갈 계획이다. 현재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내에 있으며 직원은 9명이다. 시설은 지층에 특수자료실, 2층에 문헌정보실, 자료정리실, 3층에 영상음악실, 공동감상실, 세미나실, 서고,

사무실로 이루어졌다. 소장자료는 도서 88,967권, 비도서인쇄자료 146,268점, 영상자료 21,838점 등이다.

11)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미술연구소는 2001년 연말에 개소하여 미술정보지 서울아트가이드와 www.daljin.com을 통해 미술정보를 제공해왔다. 필자인 김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과 가나화랑 자료실장으로 20여 년 근무했다. 미술자료실은 2007년 5월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소장자료는 정리된 도서류 9,000여 권, 미술 정기간행물 331종 6,400여 권, 학회지 54종 850여 권, 미술가 개인파일 280여 명 등이 있다. 이외 다량의 팸플릿, 일간지, 주간지, 신문기사의 원본을 비치하고, 자료관리 프로그램은 (주)포스비브테크의 책꽂이를 사용한다. 현재 도서, 작가화집, 도록, 팸플릿, 시청각자료를 계속 정리하여 전산화하고 있다. 열람은 사전예약제로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별도로 daljinbook.com과 daljinmuseum.com을 운영한다.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미술 자료들부터 현재에 발간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회지, 신문기사, 논문, 팸플릿, 작가화집까지 방대한 근현대사 미술자료가 소장되어 있어 우리 미술의 형성과정을 그대로 엿볼 수 있으며, 박물관 내에 자료실이 마련되어 한국미술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가 설립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기 위해 2008년 개관한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이다. 한국미술에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정리·연구하고 있다. 또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등을 통하여 우리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회와 귀중한 미술자료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동안 ‘미술정기간행물 1921~2008전’, ‘미술인의 운문과 산문전’, ‘한국미술사+화가의 초상전’ 전시를 가졌다.

12) 도자만권당

경기도 이천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도자진흥재단의 도자만권당은 도자 전문도서관으로서 2005년 4월에 개관했다. 자료실은 일반 공개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29.75㎡(130평)이고 열람좌석수는 54석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도서 10,256권, 연속간행물 39종, 비도서 1,059장이며 자료관리 프로그램은 MAESTRO를 사용하고 있다. 금년 자료 수집 예산은 4,000만원이다.

3. 미술자료실 설립의 흔적

1) 연희조형관

그동안 미술자료실을 표방한 곳이 몇 곳에 설립되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조각가 김영중씨가 1985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세운 연희조형관 안에 1988년 7월 개인 자료와 이시현, 유흥준, 전정수 씨 등 미술계 인사의 기증으로 카탈로그 15,000여 종, 슬라이드 3,000점, 논문 300편, 비디오 400여 종을 비치했다. (중앙경제신문 1989.5.30) 이곳에서 연희조형관 자료목록집을 1988년, 1989년, 1991년, 1993년에 4회 발행했다. 이 목록집은 연희조형관 미술자료실에 소장된 도서, 논문, 슬라이드, 비디오, 정기간행물, 카탈로그를 구분해 수록했다. 카탈로그는 장르별로 나누어 전시회 연도 및 일자순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카탈로그의 전목록을 자료목록집에 수록한 것은 드문 예이다.

2) 한권미술자료관

전시 기획을 하던 이한권씨가 1994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신탁은행 건물 5층(현재 신상갤러리)에 한권미술자료관을 열었다. 지난 70년부터 현재까지 열렸던 각종 전시회 카탈로그의 90%에 해당하는 30,000여 권, 국내외 미술도서 화집 3,000여 권, 슬라이드 2,000여 점, 논문집 200여 권, 미술정보지 500여 권 등으로 소장자료가 방대했다. (서울신문 1994. 3.16) 이씨는 전시기획, 화집 편집 등의 일을 했고 그 후 현재의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자리로 자료관을 옮겼지만 중단되었다.

3) 연곡재아트컨설팅

무등방갤러리, 조형갤러리에서 일했던 고여송씨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연곡재아트컨설팅을 설립하여 한국근현대미술자료를 수집, 전산화 및 정보화를 내세우며 『1995 한국현대미술작가들』 발간을 홍보했다.(미술세계 1995. 4 광고). 그 후 인력을 보강해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전했는데 별다른 활동을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고여송씨는 수집했던 자료를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2008년 타계했다.

4)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

1995년 미술의 해에 '95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와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한국미술의 장기적 발전과 문화정보력의 제고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미술문화정보센터 연구작업을 완료하고 개념과 기본구상, 외국의 실태, 향후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1. 서론 2.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의 의의 3. 미술문화정보의 내용과 최근동향 4. 미술문화정보센터의 특성 5. 정보시스템의 개발 6. 해외 유사기관 건립 및 운영사례조사 7. 건립 및 운영연구 8.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연구보고서로 끝나고 말았다.

5) 한국현대미술기록보존소

한국현대미술기록보존소(Archives of Korean Contemporary Art)는 뜻있는 작가, 아티비스트, 비평가, 미술사가에 의해 2003년 설립되었다. 기록자료는 미술문화의 연구, 향유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수호자 - 사료(史料)로서 사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미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관련 기록자료의 수집과 연구, 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출발하게 되었다.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정보화 및 보존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기관은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사이트(artarchives.or.kr)에 그 명맥만 남아있다.

6)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연구

2007년 문화관광부는 예술아카이브 설립 논의를 위해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를 펴냈다. 이 연구보고서는 1. 서론 2. 예술자료의 특성과 관리실태 3. 예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강화 방안 4. 국립예술아카이브(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5. 결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펴냈다.

4. 미술자료의 실태와 개선 방안

작가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자료집, 카탈로그, 파일,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 대학의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어느 큰 건물 앞에 설치할 공공조형물 한 점을 수주하기 위해, 어느 화랑을 노크하거나 전시장 대관신청 등에도 자료제출을 요구받는다. 이제는 작가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작품 창작 못지 않게 작가는 스스로의 작품세계를 잘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작가 개인의 자료는 본인 자신에 의해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창작에 전념하는 작가들은 자료를 남기는 데에 소홀함이 많다. 예술활동에 대한 기록에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모처럼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만든 호화 카탈로그나 화집이 내용을 보면 충분한 자료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다. 그동안 사용했던 전시회 서문을 연도도 없이 재수록하여 어느 때의 글인지 모른다. 화집에는 전시경력, 작품소장처, 본인관련 문헌 등을 상세하게 수록할수록 좋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전시회의 카탈로그나 미술관련 출판물에서 미술자료는 정확하게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전시회가 평범한 전시회라는 인상을 주고, 반대로 별 의의를 찾을 수 없는 전시회가 범국가적 전시회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새롭게 정보와 자료를 점검할 시점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술계에 무감각하게 만연되어 있는 현상 하나를 고쳐야 한다. 실제 전시된 작품과 카탈로그 상의 작품이 서로 다르게 소통되며, 이 때문에 신문지상에 전시장에는 걸리지도 않은 작품이 전시된 양 실리기도 한다. 카탈로그는 제작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며, 전시될 작품을 모아 주관처가 촬영하거나 혹은 작가 본인이 슬라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탈로그 제작 진행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 전시회에 나오지도 않은 작품이 출품된 것처럼 버젓이 실린다. 전시회가 끝나면 그 작품이 출품작으로 둔갑하여 남게 되는 셈이다. 더러는 작품 경향도 전혀 다른 엉뚱한 구작을 실어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적어도 출품작이 아니면 참고작품 표시를 한다던지 실제 전시되는 작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번 잘못된 기록의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인터넷 열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술사이트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와 내용을 만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미술관화랑주소록은 폐관된지 몇 년이나 지난 곳의 주소마저 복사하여 재생산하고 있다.

미술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술작품 자체의 정보이고, 또 하나는 미술에 관한 기록자료이다. 전자는 미술작품과 데이터베이스(디지털아카이브 포함)의 구축을 통해 나타나며, 후자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도서관 잡지라는 형태를 취하며 전통적으로 미술도서관, 미술자료실에서 다루어 왔다. 따라서 미술정보의 네트워크화라는 문제를 다룰 때, 미술작품과 미술도서관이라는 두 분야가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술작품과 정보, 그리고 이에 관한 기록자료의 서지정보나 그 전문(全文)을 횡단하며 검색할 수 있어서, 미술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관이나 국경을 넘어 미술에 관한 기록자료를 상호이용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아트도큐멘테이션연구회’는 1989년 설립되어 미술 문화재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에 주력해왔는데 2004년 연구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미술 문화재 정보의 네트워크화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 ‘제3회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포럼’을 기획하였다. 그보다 앞서 필자는 석사논문을 쓰면서 일본의 아트도큐멘테이션연구회가 미술관·박물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기타 270개 기관의 자료를 조사한 1995년 <미술분야의 문헌·화상자료소장기관일람>을 참고했다. 그 자료집에는 기관별 기본안내에 덧붙여, 문헌자료와 화상자료로 크게 구분한 뒤 보유자료, 수집방침 및 장서특색, 검색방법, 장서목록·서지류, 시설, 담당부서, 축차간행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 전 자료정리를 하다가 1927년 아사히신문사에서 발간된 『일본미술연감』을 본 적이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미술연감』은 1977년에야 창간되었으나 그마저도 1997년에 폐간되었다.

앞으로 미술정보화를 위해서 첫째, 미술자료 업무 종사자를 미술 전문주제 사서로 양성하여 적극적이고 선별적인 자료수집 태도와 봉사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미술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자하는 이용자에게 유익한 모든 자료를 발굴, 제공하고 전문가의 평가로 정리하는 것이다. 업데이트를 위해 자료를 분류, 축적하며 미술서적 목록과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이미 간행된 보고서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을 보여야 한다. 한 작가에 대한 자료도 최신 활동까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술자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학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수한 미술분야 자료정리는 연구와 협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키비스트, 미술도서실 사서, 큐레이터,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강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5. 미술자료실의 문제점

이제 미술자료실은 일반 도서관처럼 미술도서와 팸플릿 등을 구비해 놓고 도서 열람자를 안내하는 기능에만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2차 자료의 생산뿐 아니라 한 나라의 미술작품 문화재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를 책임지는 기구이다. 게다가 미술인들의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술계의 활동을 수집·정리하고, 기관 자체의 행정적인 기록까지 보존하는 아카이브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앞으로는 미술문헌 자료들을 새롭게 수집·분류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덱스카드 분류, 미술관 소장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소장품 주제 분류, 작품 관련 문헌자료 색인을 제공하고 그 소스에 하이퍼링크가 되는 통합된 소장품 관리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한다. 미국 국립미술관 미술자료실의 경우 행정사서 등 15개 분야에 직원이 수십 명이 있고, 영국의 대표적인 근현대미술관인 테이트갤러리 자료실에는 사서 외에 전문 기록보관자(아키비스트)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잘 알려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게티미술연구소의 아카이브는 미술사 연구의 핵심기지이다. 이런 곳이 미술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술정보의 지식 창출과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미술자료에 대한 인식 부족

미술자료의 관리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중요한 미술자료는 국가의 유산이고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동일하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상호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 미술을 기존의 장르로 구분하기에는 애매하고 다양한 매체가 너무 많아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제는 모든 자료정리의 기초가 되는 양식과 운용체계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자료관리 표준화 방안의 연구, 정보시스템 개발과 보급,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미술자료실의 운영은 단순히 미술과 관련된 도서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술자료실은 미술과 관련된 모든 문헌과 기록들을 수집해 정확한 정보로 재생산해내는 곳이어야 한다. 미술저작권 및 미술품 감정, 미술가·미술사에 대한 재해석 및 평가의 시작은 자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 기관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미술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별로 특성화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된 각 기관의 미술자료실을 통합관리하고 상호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총체적인 미술아카이브 설립도 필요하다.

2) 인력의 부족

미술자료실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미술자료실이란 특수한 분야의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문헌정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술자료실의 직원수는 대부분 학예직, 혹은 사서직 한 명이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부수적인 업무로 자료실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을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해소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미술자료실의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센터로 인식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용 신청도서 구입, 신간서적 비치 등에만 머무르는 미술자료실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의 전시 및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자료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술자료실은 학예연구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며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전시 및 행사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미술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인력의 잦은 교체도 큰 문제가 된다. 1~2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조직이라면 자료담당자가 미술전문사서, 아키비스트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술과 정보학을 접목시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과 확충이 필요하다.

3) 예산의 부족

앞에서 각 미술관의 자료실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자료구입예산을 밝히지 않은 곳

도 있고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1년 자료수집예산은 국립현대미술관 3,000만원, 서울시립미술관 1,770만원, 부산시립미술관 1,7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미술자료는 일반 도서관과 달리 자료구입 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편이다. 인쇄 상태가 좋은 작품집 및 사진집 등은 한권에 10만원이 넘는데, 만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10만원짜리 작품집 50권을 사면 1년 자료구입비가 바닥나게 될 것이다. 예산 부족은 곧 소장자료 부족으로 연결되어 열람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인력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술자료실에 도움이 되는 인력의 확충, 중요한 미술자료의 구입 및 수집, 이용자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람서비스의 마련을 위한 예산배정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기관에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자료구입보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드러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예산 배정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술자료실 운영의 중요 부문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

6. 미술정보센터 설립 제안

앞으로 국립예술아카이브가 설립된다하더라도 각 기관과 단체가 제각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실을 한 곳에 통합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리를 위해 코라스(KORAS)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했듯이, 우선 자료를 표준화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자료 정보의 생산처인 미술관, 화랑, 미술대학, 미술단체, 그리고 각 자료실에 공급해주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쉬워진다. 미술정보센터는 아카이브의 주된 기능인 미술자료의 수집 보존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보를 소비자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올바른 2차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미술정보센터의 위치도 미술활동의 중심지인 인사동 부근이 적합하다. 미술자료 정보의 국제화와 우리미술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또한 통합된 창구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미술행사, 미술가의 활동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필요하다. 누구나 자료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서지 않는 이유는 투입되는 노력과 예산에 비해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1) 미술정보센터의 기능

- ① 학술출판 - 근현대 미술자료의 전문적인 학예업무
사전, 연감, 자료집, 카탈로그 레조네 등 출판
- ② 자료관리 - 미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관리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 가공
- ③ 정보제공 - 미술분야 정책 및 연구자를 위한 전문자료 지원
미술잡지 및 미술사이트에서 동시대 정보 제공
외국의 최신 미술정보 수집, 국내 보급
- ④ 홍보창구 - 미술잡지, 미술학회지, 미술사이트 등의 미술정보 매체의 외국어화
작가, 기관의 국제진출창구 및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의 홍보
- ⑤ 교류공간 - 회의실, 국제 세미나, 학술, 정책 세미나 등의 교류 공간
- ⑥ 열람공간 - 일반인, 전문가, 애호가들이 미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2) 미술정보센터의 구성

- ① 연구소 50여 평의 공간
 - 미술정보잡지발행, 미술사이트 운영
 - 미술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운영
 - 미술분야 정책 지원
 - 미술인명사전, 미술연표, 비평서 등 출판
 - 외부 연구 용역 수행
- ② 미술자료박물관 50여 평의 공간
 - 가치있는 미술사료 수집과 보존(아카이브)
 - 미술자료사 연구
 - 미술자료 기획전시
 - 미술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③ 미술자료실 50여 평의 공간
 - 일반 열람 개방
 - 주요 근현대작가별 파일 구축
 - 전공 및 연구자를 위한 문헌자료 제공
 - 해외교류를 통한 상호교환 대차 서비스

- ④ 홍보관 + 아트북카페 50여 평의 공간
 - 일반인을 위한 미술전문서점과 카페
 - 미술인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사랑방
 -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의 홍보 창구
 - 외국인을 위한 미술문화 안내소
 - 일반인과 작가들의 만남의 광장

3) 효과 및 향후 계획

- ① 효과
 - 공익성: 미술사 자료 구축 및 공유
 - 대중화: 일반인을 위한 열린 공간
 - 국제화: 해외 홍보의 창구 역할
 - 전문성: 신뢰있는 자료제공 및 가공
- ② 계획
 - 합리적 보존시스템을 갖춘 아카이브
 - 미술가 및 유족에게 미술자료 기증 유도
 - 미술자료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
 - 작품감정의 필수인 카탈로그 레조네 제작
 - 미술잡지, 미술사이트 외국어 버전 확대
 - 미술대중화 기반

7. 결론

한국 미술계도 그동안 상당한 양적인 패창을 보여왔다. 작가, 전시회, 전시공간, 관람객, 미술시장 등의 성장과 함께 그만큼 정보와 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다양해지는 미술정보를 어떻게 생산하여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 정리, 기록, 보존하여 후세에 남길 것인가? 오늘날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 자료를 소멸시키지 않고 효과적으로 정리, 보존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

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보의 부가가치는 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산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록과 자료의 가치와 역할을 과소 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풍토는 쇠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미술계가 성장하면서 미술자료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해지는 수많은 미술정보를 어떻게 분류, 정리, 기록하여 후세에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의 정확한 자료가 내일이면 역사의 사료가 되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의 기본이 되는 자료집, 연감, 미술사전, 인명록, 통계 등이 부족하다. 미술관에서 필수적인 작가를 찾아보던 인쇄물인 한국미술연감은 1997년에 폐간되었으며 월간미술연감에서 권말부록으로 제공하던 것도 1999년 이후 중단되었다. 몇 년 사이 미술계를 흔들었던 이중섭 진위 문제, 박수근 ‘빨래터’ 시비도 자료의 취약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다. 이 사건들의 결론은 작가의 카탈로그 레조네(전작 도록) 제작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예술정보관을 분리하여 내년부터 독립기관으로 출범시킨다. 새로 설립되는 예술아카이브(가칭)를 위한 시각예술 정책자문회의 첫 모임을 10월 20일에 가졌다. 작년 2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시각예술 분야 아카이브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세미나도 있었다. 2009년 11월 14일에는 서울대 미대 조형연구소 주최로 “한국 근현대 미술/디자인과 자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1995년 미술의 해에도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 연구>와 2007년 국립예술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등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나의 마지막 꿈은 접근성이 좋은 인사동 주변에 미술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인사동은 많은 미술인과 미술관련자, 애호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쉬워 접근성이 좋다. 그 곳에, 미술자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미술자료박물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미술자료실,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아트북카페, 한국미술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홍보창구 역할을 하는 복합공간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더 늦어지기 전에 소장한 미술자료들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으로 흩어져 있는 중요한 미술자료들이 손상되거나 폐기되기 전에 수집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고 있다. 정부도 구호로는 정보화 시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전시, 행사, 창작스튜디오, 미술관 건축에 치중하고 있다. 이제는 더 중요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모든 일의 근간인 자료문화 인프라 구축을 할 때이다. 대한민국 현대미술사의 기록과 보존

을 위해 절실한 시점이다. 공간 확보가 급선무로 개인 김달진자료박물관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미술정보센터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구청 3 곳을 찾아가 보았으나 결과는 없다. 무상이 좋겠지만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차료를 낼 용의가 있다. 잘 할 수 있는 곳에 조건부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할 때인 1991년, 『현대의 시각』 15호에 실린 “미술관 자료수집 현황”에서 미술자료센터 설립을 주장한 이래 여러 제안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는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일만 앞세우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 한국미술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고 기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미술자료 관리와 자료실 실태, 미술정보센터 설립

도표 1. 국공립미술관 자료실 현황

2009. 10.

기관명	개관년	도서 (권)	연속 간행물 (종/권)	비도서 (부)	자료관리 프로그램	미술관 1년 전체 예산(원)	1년 자료 구입비(원)	자료 구입비 비중	직원수 (명)	연이용 자수(명)	연면적 ㎡(평)	좌석수 (석)	자료실 공개 여부
경기도 미술관	2006	3,270	36종/ 2126권	2,024	GOLDIS- PRO (KOLAS II Version)	5,000,000,000 40,800,000원 (자료실 1년예산)	13,400,000	0.27%	1	비공개	56㎡ (약 17평)	8	비공개
경남도립 미술관	2004	4,023	26종/ 1396권	2,846	자체개발	3,000,000,000	10,000,000	0.33%	3 (자료실 1명 / 자료실 2명: 함쳐서 운영 예정)	1,800 여 명 (2008년 기준)	158.4㎡ (약 47평)	18	공개
광주시립 미술관	1992	4,776	1896권	196	WEB 도서관리 (자체개발)	5,740,000,000 9,000,000원 (자료실 1년예산)	2,000,000	0.03%	2	3,000여 명	250㎡ (약 75평) (자료 열람실 및 아카이브 자료실 포함)	20	자료 열람실 공개 / 아카이브 자료실 비공개
국립현대 미술관	1981 (자료실)	18,428	110여 종	4만여 권	KOLAS II UP (도서 및 연속 간행물류), 자체 관리 프로그램 (미술인 및 팬플릿 자료)	23,900,000,000	30,000,000	0.13%	2	1만명 내외	231.4㎡ (약 70평)	18	공개
대전시립 미술관	1998	4,681	1930여 점	영상 미디어 자료 370 여점 / 도록, 리플릿 13,000 여 종	책꽂이 프로그램	3,943,405,000 11,100,000원 (자료실 1년예산)	5,000,000	0.13%	1 (담당 학예사) (그외 자원 봉사자 20인)	1,200 여 명	246㎡ (약 74.4평)	40	공개
부산시립 미술관	1999	8,076	38종	CD/ DVD 287종	자체DB 프로그램	5,558,590,000	17,436,000	0.31%	1	4,069명 (2008년 기준)	235.58㎡ (약 72평)	48	공개
서울시립 미술관	2003 (자료실)	18,500	50종	6700여 종	서울시 자체개발 도서관리 프로그램	12,563,000,000 22,400,000원 (자료실 1년예산)	17,700,000	0.14%	1	12,000	160㎡ (약 48.4평)	18	공개
전북도립 미술관	2004	3,064	559권	313 (영상 자료)	책꽂이 프로그램	2,000,000,000	8,000,000	0.4%	1	비공개	45㎡ (약 13.6평)	10	비공개

조형_아카이브

도표 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 현황

〈2006년 연보자료〉 소장 도서·자료 현황

2006. 12. 31

종류	수량	내용	비고
단행본	10,785권	국내외 미술분야 단행본	구입 및 기증
학위논문	4,395권	국내외 석박사 논문	기증
연속간행물	110여 종 (국내 60여 종 / 국외 50여 종)	국내외 간행물	구독 및 기증
미술인자료	10,446명 (소장품 작가 3,047명 비소장품작가 7,419명)	국내외 미술인	
전시 팸플릿	20,012종 21,084권	국내외 전시 팸플릿	
미술 기사철	838권 (미술관 기사철 93권 / 일반미술 기사철 745권)	일간지 게재 미술관련 기사	
외국 미술관	70개 파일	해외 주요 미술관 발행자료	
슬라이드	약 23,416매	미술관 기획전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503종 565개	미술관련 비디오	
CD	300종 349개	미술관련 CD	
DVD	115종 125개	미술관련 DVD	
포스터	301종 (약 1,500매)	미술관 기획 전시 포스터	
기획전 도록 및 기타 출판물	411종 (약 17,800권)	미술관 기획 전시 도록 및 자료	

* 표에서 사용된 '미술관'이란 용어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칭하는 것임

도표 3.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자료현황

구분	수량	내용
단행본	9,000여 권	오세창, 『근역서화징』, 1928 Andreas Eckardt 『History of Korean Art』, 1929 세키노 타다시, 『조선미술사』, 1932 오지호,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 1938 윤희순, 『조선미술사연구』, 1946 채희순, 『문화사대요』, 1956 Sam Hunter, 『Modern French Painting』, 1956
정기간행물	331종 6,400여 권	『조형예술』, 1946년 『신미술』, 1950년대 1940 - 현재까지 잡지 등 소장
미술학회지	54종 850여 권	조형교육, 한국근대미술사학, 미술사논단 등
미술자료집	300여 권	세미나 초록, 기타자료집
논문	400여 권	미술관련 석사(340), 박사(60) 논문
팸플릿	약 10,000여 점	1929년 『제8회 선전진열품목록』, 1941년 『이왕가미술관 요람』 1947년 『1회 조선미술문화협회전』, 1953년 『1회 현대미술작가초대전』
신문 자료	1970 - 80년대 주요기사 1996 - 현재 일간지미술기사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간 13종, 석간 2종
작가 개인파일	280여 권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이상범, 백남준 등 주요 근대작가 작품도판, 신문 잡지 기사

* 2009년 11월 등록 자료 현황

참고문헌

- 김달진, 「관람객은 속고 있다-미술자료 기록의 허구」, 『선미술』, 1985. 겨울호
_____, 「미술관 자료수집 현황」, 『현대의 시각』, 1991. 1~2월
_____, 「미술정보의 생산 관리, 새로워져야 한다」, 『가나아트』, 1996. 9~10월
_____, 「[문화는 살아있다] 하이테크 외면한 미술정보 관리」, 『중앙일보』, 1996. 9월 14일
_____, 「해도 너무한다, 누가 역사를 그르치는가」,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 논문, 1999
_____, 「새로운 종합 미술자료센터를 만들자」, 『월간미술』, 1999. 2월
_____, 「미술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미술세계』, 2000. 7월
_____, 「미술인 22명에게 물어본 인터넷 미술사이트의 향방」, 『월간미술』, 2001. 12월
_____, 「[미술동네] 제대로 된 미술자료 없나요」, 『중앙일보』, 2001. 12월 5일
_____, 「[문화칼럼] 홀대받는 '미술관 사서」, 『동아일보』, 2002. 9월 7일
_____, 「[아트북스] '미술정보' 후진국」, 『조선일보』, 2003. 1월 29일
_____, 「한국의 미술·문화재 정보 네트워크화를 위한 제언」, 『월간미술』, 2004. 9월
_____, 「일본 "미술·문화재 정보 네트워크화" 국제세미나」, 『서울아트가이드』, 2004. 9월
_____, 「미술자료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가」, 『월간미술』, 2004. 12월
_____, 「[미술]인사동에 아카이브 설립을」, 『세계일보』, 2005. 5월 24일
_____, 「'카탈로그 레조네' 주문을 외우자」, 『조선일보』, 2007. 2월 6일
_____, 「나의 꿈은 인사동에 미술정보센터 설립이다」, 『미술세계』, 2009. 1월
_____, 「한국미술을 위한 미술정보센터 설립을 요청한다」, 『서울아트코리아』, 2009. 7월